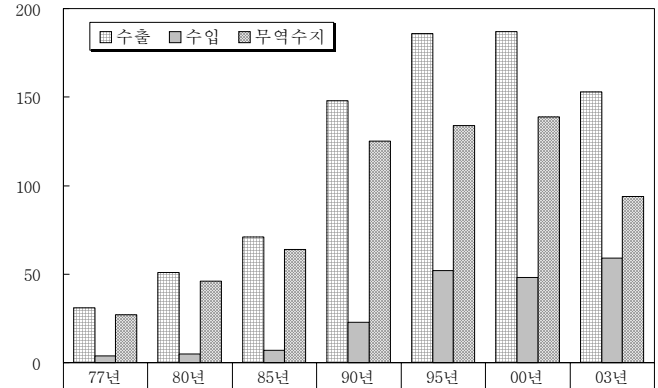
제 9 장 섬유·패션 산업

제 1 절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섬유패션산업과 사무관 문철환

우리 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초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핵심 기간산업으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의 국내 총생산액(2003년)은 39조원으로 47%인 18조원(153억불)을 수출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94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수출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림 Ⅴ-9-1〉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77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3년
수출	31	51	71	148	186	187	153
수입	4	5	7	23	52	48	59
무역수지	27	46	64	125	134	139	94

* 자료 : KOTIS, 단위 : 억불

또한, 국내 제조업중 총 수출(2003)의 7.8%, 업체수(2002)의 17.4%,

고용(2002)의 13.3%, 생산액(2002)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우리 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최대 고용산업이자, 중요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 지식, 정보 산업과의 접목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 Ⅴ-9-1〉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2)

(단위 : 억불, 개, 천명, 10억원)

구 분	수출액(2003)	업체수	고 용	생산액	부가가치액
제 조 업	1,938	110,356	2,696	633,199	242,300
섬유산업	153	19,192	359	42,570	16,776
비 중(%)	7.8	17.4	13.3	6.7	6.9

*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KOTIS

국제적으로는 세계 5위의 섬유수출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1년 기준으로 섬유수출은 중국, 이태리,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4.7%)를 점하고 있으며, 화섬직물 수출은 세계 1위(16.9%), 화섬생산은 세계 3위(9.7%)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섬유 생산 및 수출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 Ⅴ-9-2〉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1)

구 분	세 계	중 국	이태리	미 국	한 국	독 일
수출액(억불)	3,564	899	252	196	153	179
점유율(%)	100	25.2	7.1	5.5	4.7	5.0

*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2001

국내 패션·의류 산업은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의류업체 7,500개, 패션 샵(Shop) 및 패션몰 등이 20,000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류 수출(2003) 46억불, 섬유류의 내수공급이 28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섬유·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100만명(생산 36만명, 유통·패션 6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 2 절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이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화, 정보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지식적 무형자산은 「지식적 요소가 가미된 패션·디자인」,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섬유생산」, 「정보적 요소가 가미된 트렌드·마케팅」 등 3개 분야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산업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패션에 의해 패션제품을 만들 경우 10～100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수요자 중심의 생산·유통·마케팅·정보화 체제 구축」, 「고유 브랜드에 의한 고급 패션의류 수출 증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섬유제품의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및 Life style 변화 등으로 2010년까지 연평균 3.3%의 증가가 전망되며, 세계 1인당 섬유소비량은 2000년 8.7kg, 2005년 9.7kg, 2010년 10.8kg으로 연평균 2.2%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섬유소비량이 1990년 14.5kg에서 2000년 18.4kg으로 연평균 2.4%가 늘어났으며, 이는 소득 및 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산업용섬유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데, 산업자재의 경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패션화 추세에 따라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금속, 플라스틱, 종이 등의 대체소재로 응용되고 있어 향후 산업용 섬유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유시장의 규모는 2000년 5,314만톤에서 2010년 7,379만톤으로 연평균 3.3% 이상의 증가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류용의 경우 고급품 위주로, 산업용섬유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로 발전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섬유소재는 한정된 천연섬유보다는 응용성이 높은 화학섬유 위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Ⅴ-9-3〉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단위 : 천톤, %)

구 분	2000(A)	2005	2010(B)	연평균(B/A)
천 연 섬 유	21,247	22,991	24,590	1.6%
화 학 섬 유	31,893	39,845	49,202	4.4%
합 계	53,140	62,836	73,792	3.3%

* PCI(Petrochemical Institute), 영국, 2002

세계 섬유류 교역은 2000년 8,945억불에서 2010년에는 연평균 4.3% 증가한 13,608억불로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선진국은 패션이 가미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저가품은 후발개도국에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국가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상호 평등적인 교역증진을 위한 WTO 등의 노력으로 섬유류 교역은 매년 높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 Ⅴ-9-4〉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단위 : 억불)

구 분	1990(A)	1995	2000(B)	2005	2010(C)	연평균 증가율	
						(B/A)	(C/B)
교역규모	5,436	6,986	8,945	11,280	13,608	5.11	4.29
수출규모	2,547	3,440	4,426	5,548	6,703	5.68	4.23

* PCI, 2002

세계 섬유기술 개발은 기능성, 방사속도, 섬유의 굵기, 강도 등의 극한화와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신섬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향상을 위해 의류용 중심으로 인체보호 및 적합 기능성, 보온·보습, 방오·소취, 투습·방수 등 단순기능을 추구하면서 섬유의 Softness, Dry/Wet, 화섬의 천연섬유화 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향후 미래 신섬유는 인간사회 및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New Frontier, 쾌적 Fashion성, 의료(醫療)용 섬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인텔리전트 섬유, 환경친화성 섬유, 첨단 의료용 섬유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섬유의 개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섬유도 개발되어 환경, 의료, 건강, 실버 등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섬유의 초(超)극세화, 극한 기능화, 복합화, 인체친화, 환경친화 등으로 급격한 기술진전을 보이고 있어 기초기술을 수반한 핵심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향후 세계 섬유기술은 독자적인 기능성의 변화와 함께 전자, 화학, 생물, 기계 등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섬유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옥수수, 감자, 거미줄 등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신섬유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 섬유기술의 개발방향은 섬유 방사기술의 초음속화, 섬유굵기의 나노(Nano)화, 섬

유의 초고강도화 등 극한(極限) 성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용, 인테리어용, 산업용섬유 등의 용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무인공장화 등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 3 절 섬유류 교역환경의 급변

1. 2005. 1월 섬유쿼터의 전면 폐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인 GATT 복귀로 2005년부터 섬유교역이 완전 자유화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그동안 섬유쿼터 체제(MFA)하에서 누려 왔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WTO의 섬유교역 자유화는 섬유교역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섬유수출이 감소되는 등 섬유교역 자유화(섬유쿼터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교역 자유화와는 반대로 주요 섬유수입국은 섬유교역의 자유화에 역행하는 신원산지 규정의 실시, 빈번한 SG(Safeguard)·AD(Anti-Dumping) 발동, 통관 및 행정절차의 복잡화 등 무역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중국의 WTO 가입(2001.12)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수입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완화 등 무역·투자 장벽이 완화되어 가는 등 급속한 대외개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투자 장벽의 완화로 섬유·의류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로 급부상될 전망이며, 중국의 교역규모는 2020년에 세계 2위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섬유산업에 대해 내수위주의 생산을 수출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기술개발, 산업용섬유 육성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중국의 세계 섬유시장 점유율은 2001년 25.2%에서 2006년 40%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는 대 중국 섬유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수입도 저가품을 중심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등 「기회와 위기」가 함께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더욱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

방콕협정은 아태지역의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인도 등 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중국이 2002.1.1일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양허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되므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본, 미국 등 여타 비회원 선진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표 Ⅴ-9-5〉 방콕협정에 의한 양허관세(2002)

한국 양허관세			중국 양허관세		
품 목	기본관세	양허관세	품 목	기본관세	양허관세
섬유원료	2~8%	0.5~1%	섬유원료	5~10.6%	4~10%
섬 유 사	1~8%	6.2%	섬 유 사	6~14%	6~13%
섬유직물	8~13%	4.3~7.4%	섬유직물	10~23%	9~22%
섬유제품	8~13%	5~9.2%	섬유제품	18.3%~25%	15~18%

그러나 방콕협정에 우리나라의 양허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중·저가 섬유제품이 국내에 크게 유입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이며, 방콕협정은 2003년 현재부터 양허 품목과 특혜 폭(양허관세)을 확대하기 위한 「3라운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말에 제3라운드 협상이 종료될 계획입니다.

4. FTA와 지역블록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는 국가간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해 교역증진을 꾀하는 협정으로 현재 2003. 10월 157개가 WTO에 통보되어 발효중에 있는데, 대부분이 1995년 WTO 이후에 본격화되어 전체 FTA 157건중 100건이 동기간에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AFTA 등 FTA를 체결하여 특별원산지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섬유류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NAFTA를 비롯하여 CBI/CBTPA(카리브 유역 자유무역 협정), AGOA(아프리카 성장 기회법), IFTA(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체결한 국가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교역장벽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은 블록경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양산시키는 것이며, 지역간 국가간

섬유류 무역구조를 재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우리 나라 섬유 수출의 경우 주수입국인 미국의 FTA는 매우 큰 무역장벽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카리브, 중남미 등에 해외 직접투자를 추진하여 현지수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 WTO 통일원산지 규정의 탄생

WTO 통일원산지협정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가 나라마다 판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해소하여 국가간 무역 거래의 균형을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1995년부터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술적 작업이 시작되어 2003년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WCO는 1,241개 품목(HS 4단위)에 대한 원산지 기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 486개 이슈를 정리하였고, 2001년부터 협상이 급증하여, 현재 70.4%(342개 이슈)가 타결(섬유는 83개 이슈중 52개 합의)되었는데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각국은 국내 원산지 판정기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원산지는 제품의 가격과 이미지가 직결되고, 소비자의 행동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투자 및 부품조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6. 환경규제가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부각

환경규제는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환경과 관련한 무원칙적인 무역규제 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원칙적인 환경규제는 국가간 형평성 유지나 WTO 이념에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과 무역에 관한 규범 제정」으로 확산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규제는 에코라벨 인증(Öko-Tex Standard, 발암성 물질규제)제도를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1990년경 독일을 중심으로 자국 섬유산업이 중국 등의 저가품 수입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며, 섬유류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EU가 환경규제를 취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품목군의 대 EU 수출규모가 전체 대 EU 수출 202억불의 약 72%인 145억불(1999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섬유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원사, 안감, 직물, 의류제품 등 섬유류 전체에 대해 시험 성적서나 에코라벨의 부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취해지고 있는데 유럽 바이어가 요구하는 Öko-Tex Standard 라벨인증을 받지 못하여 수출을 못하는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 아시아가 대륙별 섬유교역의 중심축으로 부상

아시아의 역내 및 역외 교역량이 매년 급속히 증가중이나, 현재도 섬유제품의 주생산 대륙은 유럽지역으로 주로 고급품 위주로 특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중·저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섬유생산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주로 중·저가품 생산으로 이의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으로 패션·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이 국제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제 4 절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1. 1995년 이후 섬유수출 성장세 둔화

섬유류 수출은 1990~1995년간 연평균 4.76% 증가하였으나, 1995년 이후는 0.09%에 불과하고, 2000년이후 지속 감소중이며,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국내 섬유업체간 저가 수출경쟁의 영향으로 수출단가도 하락되고 있습니다.

〈표 Ⅴ-9-6〉 섬유류 수출추이

구 분	1990(A)	1995(B)	2000(C)	2001	2003	연평균증가율(%)	
						B/A	C/B
수출액(백만불)	14,750	18,616	18,702	15,990	15,253	4.76	0.09
수출량(천톤)	2,862	2,397	3,590	3,319	3,349	△3.48	8.42
단가($/Kg)	5.15	7.77	4.82	4.82	4.55	8.57	△9.11

* 자료 : KOTIS

특히 화섬직물의 수출감소로 섬유류 수출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감소 추이는 미국 등 주요 수입국의 경기침체 등에 의한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도 있으나,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제품 차별화가 미흡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단가 하락과 수출다변화 미흡, 소품종 대량 수출 등도 수출이 감소하는 원인입니다.

2. 고부가가치 섬유소재의 생산비중이 저조

2002년 국내 화섬원사의 차별화제품 생산비중은 평균 22% 수준(나일론 18.0%, 폴리에스터 25.0%)에 불과하여 범용품 생산비중이 78%에 달하는데, 이러한 화학섬유 생산품목 구성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범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범용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출금액과 물량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면에서도 선진국의 산업용섬유 생산비중이 60~70%에 비해 우리나라는 20%대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용섬유의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의료·위생, 전기·전자, 토목·건축, 항공·우주, 농업·해양 등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차별화된 기능성 산업용섬유의 생산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도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도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수요가 큰 토목용섬유 등을 병행 개발함으로써 선진국의 섬유생산 조류에 맞는 생산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핵심기술 및 패션·디자인 개발력의 취약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섬유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소재, 염색가공,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섬유소재 개발의 경우 고감성, 고기능성, 산업용 섬유 등의 분야에서 핵심기술이 매우 취약하고, 신소재 개발도 대부분 도입된 기술의 응용단계로 새로운 섬유원료 개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염색 및 가공기술의 경우 범용품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교직물, 신합섬 등 차별화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원료, 사, 직물, 염색 등 섬유산업의 Up-stream을 리드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 기술은 유명 디자이너, 세계적인 컬렉션, 디자인 기술이 매우 열악하여 선진국 종속형 또는 모방형 수준에 있고, 기타 패션관련 인프라인 표준화 사업, 패션정보의 수집·발신, 세계적 패션쇼장, 패션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문인력 등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4. 인건비 상승 및 인력부족 심화

1990년대 들어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국내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매우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평균임금 상승률 (연평균): ('90~'95) 14.5%→ ('95~2000) 6.1%). 섬유산업의 고용인력(2002)은 359천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족률이 11.9%(49천명)에 달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연수인력(11,337명)이 유입되어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생산인력 및 전문인력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5. 급격한 해외투자 확대로 공동화 우려

섬유류 해외투자는 199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2003년 현재 3,145건에 4,669백만불이 투자되었으며, '80년말부터 시작된 해외투자는 1990년초 들어 투자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1995년이후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역은 주로 아시아지역, 투자건수는 의류(봉제), 투자금액은 방적·염색 분야가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가 인건비가 싼 지역에 투자되었으며, 수출 전진기지나 선진국에 투자한 경우는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향후의 해외투자는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저렴한 인건비나 대량생산 위주의 투자보다는 수출 전진기지나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지역별 해외투자 업체간 공동협의체 구축과 상호 교류의 확대로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5절 발 전 과 제

우리 섬유산업은 세계 일류의 화섬직물, 화섬원료의 100% 국내조달, 중국 등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고 큰 생산·소비 시장이 근접해 있는 것이 강점이며,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 아시아에 불고 있는「한류」등 문화적 장점과 동북아시아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살려 세계 최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회와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 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며, 한차원 상승하는 섬유 수출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리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려 각각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소량 Quick Response에 의한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창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생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산단가 및 인건비 절감 등에만 의존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이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개성화, 패션화, 정보화, 다양화 등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 각자의 독립적인 차별화제품 생산만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빠르게 기업의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야만 급변하는 세계 교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차별화제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일본 섬유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면서도 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침체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

국내 섬유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핵심 요소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향후 스마트 섬유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 섬유소재 선도기업 발굴, 전문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

화 시대에 적합한 기업간 협업 및 Partnership 형성, 기업간 중복되지 않는 기술개발 투자, 소비자 중심의 지식경영, 세계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섬유쿼터 폐지 등의 영향으로 종합상사(대기업)의 기획, 마케팅, 수출대행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제는 생산만 하면 팔린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고,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 빅바이어 확보, 세계시장 정보 습득, 전문인력 우대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중국 등지에 수출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한류(韓流)」를 이용한 대규모 종합전시회 개최 등의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R(Quick Response)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생산·유통기간의 단축, 재고의 획기적 감소, 고효율 저비용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수준 높은 산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홍콩 등도 QR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명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도입·추진중에 있는 것을 볼 때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세계 최강 국내 IT 기반을 활용하여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e-Business 기반구축을 적극 선도해 나가야 하며, 섬유·패션 업계도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 경쟁력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기업이 기술개발로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1~3개월내에 타기업이 Copy하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제품의 차별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기술 및 신상품 개발기업의 창조적 노력(Creative 창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업계 스스로의 기업문화 형성이 시급하며, 이러한 창조적인 노력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면 선진 경영문화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어, 우리 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우리 나라 섬유·패션 산업이 세계적인 섬유·패션 강국이 되느냐 아니면 대책 없이 무너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진 산업은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퇴하는 것이 상례이므

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산·학·연·관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 수출 마케팅 강화, 정보화기반 구축, 창조적 기업문화 형성 등을 통해 세계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제 6 절 2010년 발전비전과 목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현재나 미래에도 규모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제품에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함축되어 있고, 창조적인 지식과 예술 활동에 의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세계 일류가 될 경우 세계 패션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적인 국민성, 뛰어난 손재주, 멋을 아는 민족성 등으로 인해 섬유·패션 산업은 우리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섬유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국가기간 산업으로 100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70~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중국의 급성장, 2005년 섬유교역의 자유화, 섬유교역 질서의 재편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국내 화섬 산업의 공급과잉, 생산비·인건비 상승, 업체간 과당 수출경쟁 등으로 국내 섬유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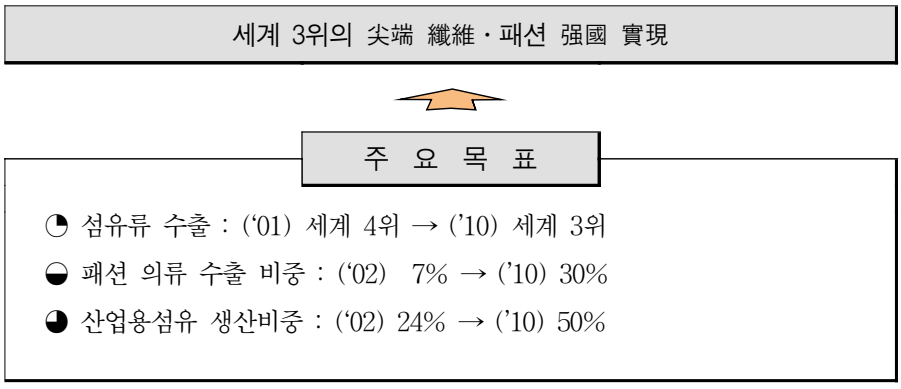
섬유수출은 1980년대 후반 연평균 15.8%의 고속성장을 실현해 왔으

며, 2000년에는 최고 수출액인 187억불을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국면을 이어오고 있어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하여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및 물류비, 생산비의 증대로 점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 중반이후 주요 수입국의 덤핑제소,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 섬유수출은 섬유 수입국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과당 경쟁수출,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품질 및 기술, 과거 지향적인 경영 형태, 정보화 도입의 미진전, 마케팅 및 브랜드 창조 능력의 저조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섬유류 수출증대에 최종 목표를 두면서 수출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및 산업용섬유 수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디자인, 정보, 마케팅 등 제반 분야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Ⅴ-9-2〉 섬유·패션 산업의 2010년 비전



따라서 보다 희망찬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2010년까지

세계 3위의 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발전을 달성코자 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패션의류 수출비중이 2002년 7%에서 2010년 30%까지 향상시키는 등 고급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섬 등 원료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용섬유의 생산비중을 2002년 24%에서 2010년 50% 까지 향상시켜 나가야할 것이며, 정보화 및 마케팅 등 기반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오늘에 이른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세계 교역환경 변화, 중국의 급성장, 교역블럭화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적극 상쇄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산업용섬유, 디지털 날염, 스포츠 레저섬유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섬유·패션인들의 자신감이며, 가장 창조적 국민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사활이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에 걸려 있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